

Education pedagogics and the pedagogics of librarianship

교육과 圖書館學教育

리카르도 나시프 著

任 明 淳 譯

(中央大圖書館學科專講)

譯者註: 이 글은 Josefa E. Sabor教授가 著述한 Methods of teaching librarianship (Unesco manuals for libraries, 16; Unesco, 1969.)에 收錄된 Ricardo Nassif教授의 Education, pedagogics and the pedagogics of librarianship을 번역한 것이다. Nassif教授는 現在 La Plata大學校(Argentina)에서 圖書館學을 講義하고 있다.

人間教育의 有用性

‘교육을 통해서만이 人間은 人間다워진다.’<sup>1)</sup> Kant의 이 말은 人間이 다른 動物과 구별되는 人間의 特性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教育의 有用性을 간략하고도 힘차게 보여주고 있다.

人間은 누구나 教育의 有用性을 인식하고 있다. 教育은 人間社會의 초기부터 人間에게 知識, 技術, 行動의 規範과 慣習을 배양해주었다. 이처럼 教育은 人類史와 더불어 출발하였다.

教育의 重要性은 시간이 지날 수록 그 認識度가 높아지고 있다. 오늘날에 와서는 文化的 水準이나 社會의 地位를 막론하고 教育의 도움이 없이는 生活을 영위하고 개선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教育은 人間을 사로잡아 生活의 改善手段은 물론이고, 社會的, 經濟的 發達에 필요한 강력한 道具이다.

그러나 教育의 個人的, 社會的 有用性을 인식하기란 용이하지 않다. 이 때문에 자발적으로 教育을 연구해야 하고, 教育이 보여주는 科學的, 專門的 機能을 섭취해야 한다.

우선, 教育이란 文化와 知識이 팽창함에 따라 教育機關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질 때 까지는 社會적으로 산만한 機能을 발휘하고 있다.

처음에 教育은 理論的인 原理와 意圖的인 方法을 갖추지 못한 채, 단순히 經驗과 直觀에만 의존하였다. 教育은 地域社會의 教育制度를 굳건히 해주고 고취시켜 왔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教育의 本質, 目的, 方法과

資料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教育을 인식하기 어렵다. 이는 특히 教育을 人間生活의 中樞的 活動으로 전문적인 教育을 받아 온 教育者들이 필히 알아두어야 할 사실인데, 이를 인식하지 못하면 教育者는 教授內容을 표현할 수도 없고, 따라서 人格도 충분히 갖출 수 없게 될 것이다.

교육과 教育學

知識과 經驗을 전달하고 慣習과 行動을 형성하는 일은 人類社會와 더불어 시작되었다. 教育思想은 이후에 나타났다.

教育의 構想과 計劃이 理論化되기 전에, 이들에 대한 現實問題가 있어야 했다. 이것이 바로 하나의 現實問題로서 教育과 教育學의 커다란 差異點이라 볼 수 있다. 教育과 教育學의 差異點이 무엇이든 간에, 이 중에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後者가 行動을 통제하는 現象과 規範이라고 볼 수 있는 知識의 總體를 다룬다고 하면, 前者는 行動에 관한<sup>2)</sup> 매우 구체적인 現象과 總體를 다루는 것이다.

모든 學問이 現實과 관련되어 있듯이, 教育도 教育學의 主題, 즉 教育의 科學과 技術에 관한 主題와 관련 되어 있다.<sup>2)</sup> 이러한 科學과 技術은 기능상, 教育의 屬性과 構造를 고려해서 이에 적합한 理論과 方法을 세워야 한다.

교육의 複雜性

教育의 方法은 복잡하고 불확실한 總體<sup>3)</sup>인 教育環

1) In his essay Über Pädagogik, published in 1804, based on notes taken in the classes on the subject which the philologist gave in the University of Königsberg.  
2) The development of the concept of pedagogics as the theory and technique of education is discussed in R. Nassif, *Pedagogia general*, part III, Buenos Aires, Kapelus, 1958.  
3) On the 'problem-centred' nature of education, see J. Mantovani, *La educación y sus tres problemas*, 5th

境에 대한 知識을 習得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단순히 教育의 탁월한 重要성을 인식하므로써, 우리는 教育이 實行하기 어려운 하나의 過程이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있다. 教育은 人間이 다루는 것이고, 동시에 人間은 教育의 創始者, 解釋者이며, 受惠者인 것이다. 매우 복잡한 教育過程을 추구하는 '人間性'이 복잡한 人間生活과 社會生活을 낳고 있다. 더욱이 教育과 관련해서 많은 概念, 要因, 制度와 方法이 복잡하게 증가되고 있는 반면, 많은 思想이 教育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다. 이것은 教育이 社會적으로 발전하는 環境에 부가해서, 教育이 理念的, 政治的 마찰의 研究分野라는 態度를 설명해주고 있다.

筆者가 마음 속에 지니고 있는 이 教育의 複雜性은 教育學이 해결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問題, 즉 教育의 概念 속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教育의 概念을 공식화하려면 人類에 관한 특수한 概念에서 찾아야 한다.

그러나 理念과 信念의 차이와는 별개로 教育現象의 複雜性에서 생기는 어려운 점도 존재하고 있다. 教育過程과 관련된 모든 學問을 다루는 教育의 概念을 생각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대부분 教育의 概念이 불완전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 教育과 教育活動

教育의 概念을 살펴 보면, 누구나 그것이 個人과 社會의 現實이요, 所得이요, 所有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教育을 '받았다' 혹은 '받지 못했다'든지 '특수한 教育과 文化的 樣相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하나의 現實問題로서, 教育은 일련의 活動과 복잡한 制度의 媒體나 個人, 社會發達이라고 하는 특수한 形態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教育은 活動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일반적인 現象이라 할 수 있다. 前者는 個人과 社會發展의 특수한 樣相을 낳는 구체적인 活動을 말하고 後者는 人間이 創造하고 發展시키는 教育現象의 總體를 의미한다.

### 非形式的 教育과 形式的 教育

教育의 活動을 調査해 보면 非形式的(非體系的) 教育과 形式的(體系的) 教育<sup>4)</sup> 2가지 形態로 나타난다.

人間의 教育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個人과 集團의 行動과 의도적인 影響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예기치 않거나 非教育的인 人間의 接觸(일시적인 만남, 友情, 愛情)이나 혹은 특정한 物質的, 社會的

背景의 存在가 人格形成을 도와주는데, 이러한 環境이 소위 어떠한 계획적인 教育目的이 없는 主題에 미치는 相互作用의 基礎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教育은 어떠한 秩序나 制度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非體系的이며, 의도적인 方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非組織的이며, 教育的 效果를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非意志的인 반면에, 自然的이고 自發的이며 反射的인 教育인 것이다. 이러한 教育에서는, 啓發이나 注入에 의해서 조작이는 相互作用은 모든 自然的, 社會的, 文化的 環境속에서 나타난다.

반면, 形式的 教育이란 意圖的인 教育과 이 意圖的인 教育을 위해서 구성되어 있는 人間體係에 의한 教育을 말한다. 그래서 形式的 教育은 組織的이고, 意圖的이고, 意識的이며 計劃의 내지는 人工的이며, 學校란 비록 유일한 教育의 形態는 아니지만 教育의 典形的인 形態인 것이다.

이처럼 모든 人間은 이 두가지 類形的 教育을 直面하게 되는 것이며, 혹은 이 두 가지 類型이 서로 마찰을 일으킬지라도 이들은 항상 並存하고 있는 것이다. 살다보면 人間은 社會的, 個人的 關係에 대해서 산만한 影響을 보여준다.

그래서 모든 學校의 課業은 이 두개의 教育形態가 빛어내는 마찰을 줄이고, 또 이 教育形態를 個性에 統合시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 他律教育과 自律教育

教育에서는 人間을 소위 教育의 主體인 동시에 客體라고 한다. 그러나 教育에서 個人은 그 一部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반대로, 教育은 個性에 影響을 주는 環境의 要因으로 구성된 過程을 말한다.

이처럼 教育이란 個人과 客觀的인 環境의 二重役制에서 생기는 하나의 過程을 의미한다. 즉 教育이란 그 過程이 目標에 일치하는 方向이 아니라, 두개의 方向을 모색하는 理論을 내세우고 있다.

이 두개의 方向중에서 하나는 教育者 혹은 教育機關으로부터 學習者에게 직접 통하는 것(教育의 影響)이고, 다른 하나는 學習者로부터 教育者 혹은 教育機關에 보여주는 것, 즉 정신적, 문화적 習得 내지는 價値로 통하는 (教育의 發達) 것이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전혀 동일한 過程을 가지고서 외부의 影響과 내부의 機能이 서로 엇갈리는 叉點(人間의

ed., Buenos Aires, El Ateneo, 1960(Colección Cultura universal).

4) Sec J. Dewey, *Democracy and education, an introduction to the philosophy of education*, New York, Macmillan, 1950.

教育)에 이르는 두개의 接近線을 가지게 된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力學의 現實을 인정한다면, 個人이 完全하지 못할 경우에는 教育 역시 全人을 만들어 낼수 없다는 結論에 이르게 된다.

이래서 우리는 教育的 意圖가 있거나 없거나 教育過程의 方向에 따라서 생기는 두가지 教育, 즉 他律教育과 自律教育을 直面하게 된다.

他律教育(heteroeducation=heteros(other, 외랍어)+education의 복합어로 ‘他人에 의한 教育’을 의미)이란 외부적 影響으로서의 教育을 말하고, 반면에 自律教育(autoeducation)이란 自信을 教育할 수 있는 意志와 外部로부터 個人에 이르는 刺戟 혹은 知識을 계속 받아드릴 것을 前提로 하는 教育을 말한다.

좌우간 他律學習이든 自律學習이든간에, 教育이란 人間의 個人的 潛在力(精神的, 肉體的)을 開發시켜주는 社會的, 文化的 過程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教育은 形式的 教育的 目的을 이루는 體系의 影響과 刺戟에 의존하는 것이다.

### 教育過程의 2領域

形式的인 過程이라는 側面에서 볼 때, 教育은 教育施設 조직상 社會的으로 그리고 組織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側面을 고려해 보면, 教育的 過程은 水直領域과 橫斷領域 혹은 水平領域, 두가지 領域으로 생각할 수 있다.

#### 水直領域

水直領域에서는 教育的 過程이 斷面마다 그 斷面을 직접 전제모하는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진보적인 結果가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이러한 教育過程의 水直動作은 첫째로, 個人的 成熟을 찾는 人間의 發達을, 둘째로, 복잡하게 변어나는 文化를 적용할 수 있는 能力을 길러 준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教育的 過程은 일련의 진취적인 順序인 第5段階로 전개된다. 그러나 이 5段階는 실제적인 教育過程에서 동시에 발생한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이 5段階는 養育, 養成, 教授, 本來的 教育, 自律教育을 말한다. 養育은 生命을 維持하는 活動을, 養成은 主體를 움직일 수 있는 習慣과 技術을, 教授는 知識의 傳達 및 同和(엄밀한 의미에서는 가르치고 배우는 것)를, 本來的 教育이란 教育을 통해서 얻어지는 價値를 의미하며, 自律教育은 외부의 刺戟은 요구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主體의 規則에 따라 이행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自律教育은 일반적인 教育過

程의 段階일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教育過程의 최후의 目的 그 자체가 되는 것이다. 모르면 몰라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René Hubert는 ‘教育은 하나의 目的을 위한 후견이다.’라고 말했는지 모른다<sup>5)</sup>

制度上的 觀點에서 볼 때, 教育過程의 水直領域은 教育制度의 進行過程속에서 나타나고 있다. 教育施設(幼稚園에서 부터 大學校까지)은 制度化된 教育的 特殊한 組織이기 때문에, 教育段階와 進行의에 教育組織의 共通原理를 따르고 있다. 이러한 共通原理에 따라, 教育過程은 個人的으로, 社會的으로, 혹은 專門的으로 人間의 能力을 보증하게 될 文化的 形態, 要因 및 有用性을 위해서 教育을 받는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增進하는데 불가피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學問(教育)의 制度가 차차 知識의 水準으로 변하고 있고, 계속적인 教育的 循環속에서 組織되어 있고, 모든 人間의 要求와 興味 그리고 人間文化的 조직적인 段階와 일치하여 構成되어 있다.

위에서 말한 두가지 要因(被教育者の 年齡과 教育內容)이 教育的 循環에 관한 定義의 基準을 제시해주고 있다.

教育的 典型的인 區分은 初等教育, 中等教育, 高等教育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외에도 幼稚園教育過程, 大學院教育過程을 들 수 있는데, 이 두개의 教育過程을 포함시키면 ‘初等’, ‘中等’과 ‘高等’이라는 名稱이 적합하지 않게 된다. 그럼에도 이 傳統的인 用語들은 지금도 계속 사용되고 있다.

幼稚園教育은 第2의 幼年期(4歲~6歲)의 兒童을 대상으로 어린이들의 慾望을 통제할 수 있는 規範을 가르치고 있다. 幼稚園教育的 目標은 어린이들에게 적절한 表現手段을 길러주고 社會適應을 도와주므로써 어린이에게 活動의 方向을 提示해주는데 있다.

初等教育은 第3의 幼年期(6歲~12歲)의 兒童을 대상으로 한다. 初等教育은 어린이들이 生活을 이겨낼 수 있는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知識을 傳達해주는 것을 目標로 삼고 있다.

中等教育은 靑少年(13歲~17歲)을 대상으로 한다. 中等教育은 高等教育과 다양한 技術, 專門分野(産業, 商業, 教育, 藝術등)를 위한 前哨教育이므로 多方面의 主題를 다룬다.

高等教育이란, 일반적으로 大學教育을 말하는데, 본래 靑年을 대상으로 한다. 大學에서는 배우게 될 主題가 대부분이 問題形式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大學院教育은 명확한 限界線은 없지만 初等教育에서

5) R. Hubert, *Traité de pédagogie générale*, 4th ed. (revised by Gaston Mialaret),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59.

부터 高等教育까지를 정리하는 教育 過程이라고 할 수 있다. 大學院教育은 ‘一流’ 專門家와 研究家を 教育시키거나 大學卒業者에게 上級課程이나 補習課程을 實施함을 그 目的으로 삼고 있다. 물론 高等教育과 大學院教育(역시 ‘高等’ 教育임)은 專門化를 꾀하는 경향이 명확하다.

### 水平領域

教育의 水直領域이 教育의 水準, 즉 教育의 段階 및 過程을 보여주는 반면, 教育의 水平領域은 教育構造가 어떻게 해서 教育의 過程과 目的에 따라서 交叉하고 分離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客體, 主體, 活動에 따라, 教育은 知的, 道德的, 物質的, 社會的, 政治的, 經濟的 教育등으로 나누어지고, 반면 適用, 主題의 寄與도에 따라서 一般教育和 職業教育으로 나누는데, 職業教育에는 醫學, 法學, 農學, 圖書館學 등이 포함된다. 만약 우리가 知識의 傳達方法和 形態를 생각하면, 분명히 理論的이고, 實際的이고, 形式的이고, 物質的인 教育의 分野와 類型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教育의 水平領域의 가능한 變換은, 만약 우리가 특별히 오늘날 教育制度의 鼎盛함을 감안한다면, 실제로 變換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 教育制度의 統合

지금까지의 내용을 읽고서, 教育의 水直, 水平 兩領域이 서로 分離될 수 있다고 단언해서는 안 된다. 모든 教育制度는 이 兩領域이 결합되어 一元化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教育過程을 사실에 입각해서 완전하게 이해하려면, 教育過程을 分析한 후에 그 要因을 다시 統合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教育의 各 分野, 類型, 方向이 어떻게 잘 다루어질 것인가를 내다볼 수 있는 두개의 觀點(水直과 水平)이 結合될 수 있다. (예를 들면, 美術教育은 中等 내지는 高等教育에서는 다른 독특한 方法을 初等教育에서 다룬다) 또한 教育過程의 各 段階와 循環이 어떻게 해서 다양한 類型, 方向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中等教育에서는 一般教育和 다양한 職業技術教育을, 高等教育에서는 專門教育을 다루고 있다.)

### 圖書館學教育의 水準과 類型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司書와 圖書館 專門家を 養成하는 圖書館學教育의 類型에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그 水準은 어떠한

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로, 圖書館學教育은 專門教育, 다시 말해서 人間을 養成하는 專門分野이다. 따라서 圖書館學教育은 敎師, 化學者, 醫師, 技士에게 가르치는 方法과 동일한 구체적인 內容과 目的을 가지고 있다.

圖書館學教育은 教育의 定義에 따라 그 內容과 方向을 생각해 보면, 知識教育 혹은 社會的, 倫理的 分野에서 생긴 要因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圖書館學教育의 方法論을 생각해 보면, 이는 理論과 實際教育을 실시하는 절차상의 教育和 어느 정도 資料를 다루는 形式的教育으로 구성되어 있다.

圖書館學教育에 적합한 水準을 생각해 보면, 이는 圖書館 專門家の 指導者에게 알맞은 水準이 되어 왔다. 더욱이나 現代文明社會에서는 圖書의 重要性이 날로 認識되고 있기 때문에, 圖書館學의 質的向上 그리고 圖書館學의 活用範圍상, 서로 다른 專門分野간의 特徵과 國家의 社會的, 經濟的 發達을 위한 圖書館의 有用성과 오늘의 현저한 傾向때문에, 圖書館學教育은 高度의 水準을 유지해야 한다. 물론 여기에 대한 反對意見도 있지만, 그다지 影響을 좌우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現在の 基準에 가장 어울리는 圖書館學學校의 대상은 大學의 學科나 적어도 이에 준하는 水準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주장은 J. Periam Danton에 의해서 명확하게 밝혀지고 있다. 圖書館學教育에 관한 概要 속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圖書館學教育의 歷史가 길고, 이를 發展시켜온 國家에서는 經驗한 바에 의해서 圖書館學校를 設立하는 데는 미리 알아두어야 할 두 가지의 중요한 問題를 얻게 된다. 그 중의 하나는 圖書館學校가 高等教育機關과 밀접한 關係를 가져야 하고, 高等教育機關으로서의 중요한 役割을 해야 하며, 다음에 圖書館學校다 有名圖書館이 많이 있는 부근에 位置해야 한다.’<sup>6)</sup>

이 주장은 1963年 11月, Medellin(Colombia)에서 開催된 Latin America 現職圖書館人의 養成教育會議에서 강조되었던 것이다. 이 會議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勸獎되었다. ‘...圖書館學校는 大學校에 附屬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大學校에서는 文化的, 學問的 基準이 있고, 圖書館學教育의 改善에 필요한 教育施設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大學基準에 도달하지 못한 圖書館學校는 가능한 모든 努力을 통하여 大學의 基準에 도달할 指針을 세운 뒤에야, 大學에 附屬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6) J.P. Danton, Education for librarianship, 7, Paris, Unesco, 1949(Unesco public library manuals, 1).

圖書館學의水準은 高等教育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는 專門의 教育의 다양한 類型, 圖書館學의 文化的 潛在力, 다른 學問의 知識 및 技法의 擴張과 일치하는 準水準에 달하는 것이 있다. 위에서 말한 Meddellin會議에서는 司書와 圖書館學의 碩士學位와 앞으로 與件이 容認되면 博士學位授與 등 3段階를 設定하였다. 물론 '大學水準級以下'의 圖書館學學校도 있지만, 대부분 大學에서는 專門司書養成을 위한 下級過程과 教授養成을 위한 上級過程을 並行하고 있는 실정이다.<sup>8)</sup>

### 高等教育의 教授法과 圖書館學의 教授法

專門司書의 養成은 教育의 한 形態이며, 의당 學問의 한 分野로서 圖書館學教授法의 起點이 된다. 더우기 專門司書養成의 올바른 位置는 '高等教育'水準에 있으며, 圖書館學教授法을 위해서 알맞은 教科課程이 高等教育의 教授法을 形成해야 하고 圖書館學의 專門性에 적합한 高等教育의 理論과 方法을 形成해야 한다.

따라서 高等教育教授法의 存在와 妥當성이 바로 圖書館學教授法의 存在와 妥當성의 條件이 되기 때문에, 高等教育(一般的으로 大學教育을 말함)의 教授法을 觀察할 필요가 있다.

大學에서의 圖書館學教授法의 可能性과 土著는 이러한 教授法이 적절하게 計劃이 樹立되어 履行되는 것이 遙遠하다는 것을 認定하면서 찾아야 한다.

研究主題로서 大學은 圖書館學教授法의 可能性과 土著를 찾아내기 위한 하나의 넓은 分野를 제시하고 있다. 이것을 研究하는데에는 다양한 基準이 있는데 어느 것은 이미 남아버린 基準도 있고, 크게 各광을 받는 基準도 있다. 高等教育의 理論과 實際를 세우는데 필요한 중요한 有用性을 지니고 있는 歷史的, 哲學的, 社會學的, 經濟學的 觀點을 가지고서 大學을 分析하기도 한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分析을 大學의 教授研究法과 比較한다면, 무엇 보다도 大學의 教授法의 制度가 缺乏되어 있음이 뚜렷이 나타난다. 그래서 大學自體가 훌륭한 教育의 담당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은 놀라운 것이며, 또 教育問題의 核心이 되어 있다고 하겠다.

大學教育의 教授法이 開發되지 않고 있는 理由는 여러가지가 있다. 그 첫째 理由는 教育分野 自體에 있다고 본다. 最近까지도 教育이란 그 語彙的인 意味인 '어린이 指導'라는 意味로 묶여있었고, 요즈음에 와서는 生活全般에 걸쳐 그리고 社會構成員의 見地에서 '人間을 가르치는 理想과 規範'으로 그 意味가 서서히

바뀌어가고 있다. 보다 넓은 領域을 향한 段階的인 向上 때문에, 教育學은 모든 學問중에서 특히 文化的으로 人間存在를 다루는 다른 分野보다는 完全한 接近法을 所有할 수 있었다.

이렇듯 社會教育이외에도, 우리는 人間成長의 段階에 있어서 여러가지 教育이 불가피함을 認識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兒童教育뿐만 아니라 靑少年教育을 위한 思考와 規範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社會的, 文化的 要因의 教育的 影響과 평형해서 幼稚園教育에서 부터 大學 내지는 大學院教育에는 形式的인 教育的 循環(過程)과 관계하는 教授法이 存在하고 있다는 것이다.

高等教育問題를 分析하고 解決해주는 教授法의 두번째 어려운 점은 대개 大學自體에 그 原因이 있는데, 科學과 人文分野의 學問 속에서 흔히 나타나는 '反教授法'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自信의 專攻分野를 熟達한 大學教授들은 大學의 講義는 專門知識만을 필요로 하는 教授法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언뜻 보기에는 이러한 주장이 옳은 것만 같이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分析해 보면, '全人'教育 특히 高等教育이 自然科學, 人文科學의 教育을 받은 사람이 사전에 점점된 知識을 傳達하는 것에 불과한가 하는 의문을 남게한다. 만약 그렇다면, 아니 그렇지 않더라도 學生들과 접촉되어 있는 단순한 사실을 통해서 教育하는 위대한 個性을 바꾸어 놓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論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教育이 단순한 知識傳達와 人間의 養成이 아니라 모든 教育者가 推論에 필요한 절대적으로 중요한 假說로서 教育을 받아드리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경우에 중요한 것은 教師의 個性問題와 學生의 個性問題인데, 이 兩者가 결합해서 教育의 形成作用의 起點이 되는 것이다. 非個人的이고 嚴重한 規則으로서 教授法을 바꿀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은 모든 教授法에 적합한 주장은 아니라고 본다. 教育者는 그 水準을 막론하고, 복잡하고 포괄적인 過程에 의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왜 大學에서는 예리한 思考力을 요구하고 있는 이 포괄적이고도 복잡한 過程을 망각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본래 大學이란 구체적 目的을 奉仕하는 教育社會이며, 教育學的 見地

7) This is the case, in the Argentine Republic, of librarianship courses, which come under the University of Buenos Aires and Universidad Nacional de La Plata.  
8) R. Nassif, Pedagogía universitaria y formación pedagógica del universitario, Universidad(Santa Fé, Argentina), vol. 40, 1959, p. 81-101.

에서 엄격한 試驗을 통해서 存在하고 있는 것이다. 大學은 敎育目的上 그 起源이 있으며, 이러한 敎育目的 때문에 大學의 構造는 특수한 것이다. 大學은 形式的이고 敎養의인 目的과 그리고 이러한 目的을 충족시켜 주는 研究計劃과, 敎授와 研究라고 하는 2중의 特權을 가진 敎授와 이를 따르는 學生으로 構成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大學이란 理論的, 敎育的 水準은 다양한 지라도, 여러 學問의 分野에서 얻어지는 研究는 하나인 것이다.

그런데 現代의 大學敎育은 이러한 要求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大學敎育은 社會學과 哲學分野를 제외하고는 너무 오랫동안 經驗의이고 直觀的인 敎育이 되어오고 있다. 그래서 바람직한 大學敎育은 高等敎育의 다양한 側面과 要因을 知識面에서 설계되어 있는 敎育의 領域으로 어울릴 수 있도록 충분히 科學的으로, 組織的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大學의 目的論과 관련해서, 敎授法은 大學의 現實性과 이러한 現實性에 방해가 될 수 있는 手段을 찾아내야 한다. 大學敎育者는 자신의 位置를 알고 있기 때문에, 大學의 目的과 機能은 물론이고 大學의 組織, 研究와 관련된 敎育의 講義計劃의 相互協助, 學生을 가르치는 方法과 學生들의 心理學的 構成을 주시하면서, 앞으로 등장하는 敎授法을 제외하고는, 學生들의 萬能敎育에 도움을 주는 環境을 결정하는 方法에 관해서도 철저히 研究해야 한다. 그리고 연령별로 나타난 主題를 附加시킬 필요성이 있어서, 社會로 향하는 大學敎育의 使命을 履行할 主題는 省略할 가능성도 있다.

職責의 遂行上, 大學敎育者는 高等敎育의 다양하고 전문화된 屬性을 극복하기 어려운 또 하나의 難點에 부딪치게 된다. 이 難點의 유일한 解決法은 ‘一般敎育分野와 大學에서 相存하고 있는 다양한 主題로 결합되어 있는 특이한 分野의 交叉點에서 方法論的인 濼癖을 피하고 敎育的 思考를 모으는 것이다.

이러한 養成이 高等敎育의 水準에 있다고 볼 때, 圖書館學은 大學敎育의 한 領域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圖書館學敎育은 전반적으로 大學에서 배우고 있는 一般敎育의 理論과 體系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圖書館學이 專門分野에 관계되고 있는 한, 圖書館學敎育은 大學의 一般的인 研究主題와 敎育學을 適用하고 展開시켜야 한다.

분명히 이러한 研究主題는 광범위한 分野이며, 따라서 어느 정도 다른 分野<sup>9)</sup>에서도 다루어졌다. 그래서 圖書館學은 敎育의 目的上, 다음과 같은 主題를 다루고 있다.

1. 圖書館學의 概念, 目標 및 機能.
2. 圖書館學敎育의 水準.
3. 司書養成에 필요한 施設.
4. 司書養成에 적합한 敎科課程과 講義計劃書.
5. 理論과 技術의 二重面에서 본 圖書館學의 敎授法.
6. 圖書館學의 研究形態.
7. 圖書館學評價方法의 樹立. 學生의 研究促進.
8. 圖書館學敎育에 있어서 非圖書館 主題. 司書의 專門性에 의한 一般敎育問題.
9. 敎員의 補充과 養成.
10. 學生補充. 圖書館學校에서의 一般敎育的, 職業的 指針問題.
11. 司書를 養成하는 圖書館의 實務活動. 大學院敎育過程.
12. 다른 水準의 敎育과 一般敎養과 그 目的에 有用한 方法에 대한 司書養成機關의 寄與度.

이상에서 열거한 研究主題는 완전한 것은 아니고, 다만 個人의 研究만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중요한 主題를 概觀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圖書館學敎授法은 個人보다는 集團에 의해서 定立된다. 이에 대한 要求를 評價하므로써 어느 정도 圖書館學敎育의 重要性和 現狀이 增進된다.

9) In the work quoted earlier, Danton works out a fairly complete subject list of library education pedagogics.

### 圖書館學敎育의 研究主題

圖書館學의 敎育이 圖書館職 養成에 그 目的이 있고

### ◎ 會費와 出版物 代金を 조속히 納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圖書館 發展을 위하여 努力하시는 會員 여러분께 感謝를 드립니다.

會員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會員 여러분께서 納付하는 會費와 出版物 代金は 協會의 運營은 勿論 圖書館 事業發展에 原動力이 되는 基本資金입니다.

여러 圖書館이 財政的으로 어려운 事情이 있을 것으로 아오나, 協會의 貧弱한 財政事情을 깊이 理解하시와 그간 未納하신 會費와 出版物代金 및 76年度會費를 納入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付託드립니다.